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융합연구

임재란¹, 이주영^{2*}

¹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for Breastfeeding of Nursing Students

Lim, Jae Ran¹, Lee, Joo Young^{2*}

¹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Dept. of Nursing, Gyeonbuk College of Health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 1, 2, 3, 4학년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유수유 지식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제공자,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모유수유 태도는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r=.237,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이며 다양한 모유수유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주제어:** 모유수유, 지식, 태도,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promote breastfeeding by understand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04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s.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SPSS/WIN 20.0 version. Knowledge of breastfeed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gender, grade, subject, breastfeeding experience, breastfeeding experience, desired information provider, and educational needs($p<.05$). Nursing attitud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grade, breastfeeding experience, breastfeeding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p<.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breastfeeding($r=.237, p<.001$). On the basis of this, we need a systematic and diverse breast feed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Key Words :**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이주영(jylee@gch.ac.kr)

Received September 12,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Revised October 28, 2017

Published November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 의료정책 중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즉 유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릴 때의 건강상태가 전 생애에 걸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새롭게 탄생한 한 생명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신생아와 영유아기의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은 예로부터 강조되어 지고 있으며 모유는 탄생한 신생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인지되어 왔다.

모유수유는 모성이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최상의 수유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며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며 면역학적으로도 우수하고 급성·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낮은 질환 발병률로 인해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학령기, 청소년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충치예방, 만성질환예방,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지고 있다[1,2,3,4,5]. 모성에게도 모유수유는 자연피임, 빠른 산후회복, 유방암과 난소암, 제 2형 당뇨병을 감소시키고 산후 비만증 및 산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모유수유를 통해 원만한 모자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

이러한 모유수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모유의 대체 식품인 조제분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후 조제분유의 과대광고로 모유에 대한 중요성이 쇠퇴되고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유수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모유수유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 90%정도였으나 2000년에는 생후 1년까지의 모유수유율이 10.2% 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의 장점이 밝혀지고 모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면서 1980년대부터 모유수유 캠페인을 벌였고, 모유수유 보호를 위한 조제분유에 대한 판매규제와 광고의 입법화를 촉구하였으며 1989년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를 권장하였고 1992년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지정사업, 모유수유의 보호와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직장여성의 여건개선[6]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에서 생후 6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은 2006년 39.3%, 2009년 48.3%, 2012년 47.1%, 2015년 42.9%로 서서히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고령 임신 및 초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7,8].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및 환경요인으로는 모성의 취업여부, 모유수유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실 확보 등의 제도 및 지지적 환경,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분만의 형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정보부족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이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유수유전문가 부족, 모유수유 개별지도활동미흡, 모유수유경시 풍조 및 관심부족 등으로 나타났다[9,10,11].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여성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유영양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전달이 중요하다[12,13,1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수유부 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주변인 및 의료인에 대한 모유수유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임산부, 수유부 및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와 임상간호사 및 의대학생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 태도 및 지식을 파악하고 모유수유의 실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

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D시와 K시 4년제 간호학과 2곳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윤리적 고려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허락을 받았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 1, 2, 3, 4학년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와 철회의 자율성, 개인정보 비밀 유지 및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든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504명의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486부(96.4%)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2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최소 표본수 112명을 근거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 모유수유지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Williams와 Hammer가 개발한 도구를 김혜숙(1995)[16]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56문항으로 '수유의 해부와 생리', '모유수유의 이점', '모유수유 금기 및 저해 요인', '모유수유 시도', '유두 동통의 예방 및 관리', '모유수유 신생아의 사정', '모유수유 보조기구의 사용', '특별한 상황관리', '모유 짜기와 보관'의 9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47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9문항은 여러 개의 보기 중 정답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9로 나타났다.

• 모유수유태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금희(1997)가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 사용하였다[17].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0문항으로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인지적 관점: 7문항, 정서적 관점: 6문항, 실제적 관점: 7문항)

중 긍정적 문항은 11개, 부정적 문항은 9개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정금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6~.7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 지식과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88.9%가 여자였고, 2학년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26.4%, 4학년이 25.9%, 3학년이 20.2%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2.8%, 불교 10.1%, 천주교 8.8%로 나타났고, 가족의 형태는 87.4%가 핵가족이었다.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는 혼합수유는 36.2%이고, 모유수유는 30.9%이였으며, 대상자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72.0%로 제왕절개분만 28.0%보다 많았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3.3%였고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5.6%였다.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는 의료인 43.2%, 보건교사 24.9%, 부모 및 가족은 24.3% 대중매체는 5.6%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유수유 교육의 적기는 임신 전후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20.8%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은 57.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36.4%가 상황에 따라, 5.8%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54(11.1)
	Female	432(88.9)
Grade Level	1st	130(26.7)
	2nd	132(27.2)
	3rd	98(20.2)
	4th	126(25.9)
Religion	protestant	111(22.8)
	Catholic	43(8.8)
	Buddhism	49(10.1)
	Non	283(58.2)
Family type	Nuclear family	425(87.4)
	Extended family	61(12.6)
Subject-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50(30.9)
	Formula feeding	87(17.9)
	Mixed feeding	176(36.2)
	Non-memory	73(15.0)
Subject-own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350(72.0)
	Caesarean section	136(28.0)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356(73.3)
	No	130(26.7)
Previous breastfeeding information	Yes	173(35.6)
	No	313(64.4)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Mass media	27(5.6)
	Health Teacher	121(24.9)
	Parents and Family	118(24.3)
	Health care provider	210(43.2)
	Other	10(2.1)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2.3)
	Middle school	31(6.4)
	High school	101(20.8)
	University	77(15.8)
	Before and after pregnancy	215(44.2)
	Before and after delivery	51(10.5)
Education Required	Necessary	281(57.1)
	Situationally	177(36.4)
	Unnecessary	28(5.8)

3.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은 총 56점 만점에 평균 17.55(±8.62)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지식은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

제공자, 교육요구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t=-4.618, p<.001$), 4학년이($F=82.047, p<.001$), 성장기 수유형태에서는 분유수유가($F=4.223, p=.006$),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t=2.507, p=.013$),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12.042, p<.001$), 의료인이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

〈Table 2〉 Difference in Breastfeeding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12.54±8.81	-4.618	<.001
	Female	18.18±8.40		
Grade Level	1st	11.81±7.42	82.047	<.001
	2nd	14.59±8.20		
	3rd	20.21±6.70		
	4th	24.49±5.37		
Religion	Protestant	18.13±8.27	.948	.436
	Catholic	18.30±1.28		
	Buddhism	18.42±8.43		
	Non	17.00±8.79		
Family type	Nuclear family	17.30±8.69	-1.673	.095
	Extended family	19.27±8.01		
Subject-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8.45±8.38	4.223	.006
	Formula feeding	19.29±8.84		
	Mixed feeding	16.94±8.38		
	Non-memory	14.98±8.87		
Subject-own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17.28±8.06	-1.090	.277
	Caesarean section	18.23±8.68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18.16±8.31	2.507	.013
	No	15.83±9.28		
Previous breastfeeding education	Yes	22.80±6.41	12.042	.000
	No	14.65±8.32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Mass media	18.59±8.20	3.515	.004
	Health Teacher	22.06±6.68		
	Parents	18.46±7.45		
	Health care provider	23.96±6.20		
	Other	21.59±6.80		
Best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36±9.78	2.294	0.45
	Middle school	14.22±8.22		
	High school	18.53±8.14		
	University	18.93±8.36		
	Before and after pregnancy	16.70±8.91		
	Before and after delivery	18.90±8.09		
Education Required	Necessary	19.79±7.80	27.551	<.001
	Situationally	14.97±8.35		
	Unnecessary	11.26±10.61		

* 유의수준: p< .05

제공자로 생각하는 경우(F=3.515, p=.004),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F=27.551, p<.001)가 일관적 특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5.61(±2.98)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 받은 경험, 교육 요구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t=-3.655, p=.001), 학년 중에서는 4학년(F=5.156, p=.002)이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가(F=2.136, p=.015), 모유수유 교육을

〈Table 3〉 Difference in Breastfeeding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14.06±3.38	-3.655	.001
	Female	15.81±2.87		
Grade Level	1st	15.05±2.95	5.156	.002
	2nd	15.28±3.22		
	3rd	15.91±2.84		
	4th	16.34±2.69		
Religion	Protestant	16.05±2.88	1.528	.193
	Catholic	15.63±2.62		
	Buddhism	14.89±3.26		
	Non	15.55±3.26		
Family type	Nuclear family	15.57±2.93	-.918	.359
	Extended family	15.95±3.29		
Subject-own feeding type	breastfeeding	15.61±3.07	1.975	.117
	Formula feeding	15.84±3.11		
	Mixed feeding	15.82±2.67		
	Non-memory	14.85±3.25		
Subject-own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15.51±3.01	-1.257	.210
	Caesarean section	15.88±2.89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15.82±2.91	2.136	.015
	No	15.08±3.11		
Previous breastfeeding information	Yes	15.97±2.97	1.967	.050
	No	15.42±2.97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Mass media	15.51±3.18	.753	.585
	Health Teacher	16.19±2.71		
	Parents	16.11±2.97		
	Health care provider	16.10±2.90		
	Other	15.22±3.56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09±3.33	.650	.661
	Middle school	15.19±3.39		
	High school	15.92±3.22		
	University	15.42±3.02		
	Before and after pregnancy	15.71±2.82		
	Before and after delivery	15.27±2.80		
Education Required	Necessary	15.87±2.87	3.758	.024
	Situationally	15.04±2.98		
	Unnecessary	14.42±3.67		

* 유의수준: $p < .05$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F=1.967$, $p=.050$),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F=3.758$, $p=.024$)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3.3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 $r=.237$ 로 지식과 태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breastfeeding Attitude,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for Breastfeeding	Knowledge for Breastfeeding
Attitude for Breastfeeding	1	.237(p<.001)
Knowledge for Breastfeeding	.237(p<.001)	1

유위수준: p< .0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추후 모유수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총 56점 만점에 평균 17.55(±8.62)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평균점수는 31.34점으로 낮은 점수이나 이는 같은 연구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은 평균 17.51(±6.13)점, 보건계열 여대생의 평균은 18.76(±7.07)점[18]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전공 여대생의 경우 100점 만점 환산인 경우 평균 78.9점[19], 여대생 대상의 경우 평균 49.70점[20]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6%에 불과하고 선행연구[19,20]에서는 최소 60%이상의 대상자가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제공자, 교육요구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지식의 높은 것은 Song, Cho, Lee와 Kim[21]의 연구, Lee, Hyun과 Lee[22]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의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3]의 연구와 대학생을 조사한 Lee, Hyun과 Lee[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22,23,2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군에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정보가 지식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관심 분야에 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당연한 결과이나 교육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령에 따라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모유수유 정보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5.61(±2.9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평균 78.05점으로 선행연구 [18,23,24]와 유사하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 교육 요구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22,23,24]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 연구 [25,26]의 결과로 볼 때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노력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어려우므로 모유수유에 대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모유수유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본 연구에서는 35.6%인데 선행연구를 보면 남녀대학생을 조사한 경우는 21.0%[21], 여대학생인 경우 62.9%[18], 79.7%[20]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학생만 조사한 연구에서 정보를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7]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가족과 지인 외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남편으로 나타났으며, Hur[28]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시 남편의 지지와 어머니의 모유수유 적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같은 교육의 기회와 지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로는 의료인, 보건교사, 부모님, 대중 매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0,23,24]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중매체와 가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69.8%였고 의료인에게 정보를 얻은 경우는 3.9%에 불과했다[20]. 중학생은 의료인이나 보건교사에게 모유정보를 받은 경우는 28.0%에 불과하고 72%는 부모님

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받았다고 조사되었다[23]. 연구대상자들은 의료인이나 보건교사와 같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의 보건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는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모유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 Song과 Kang[18]의 연구, Kim과 Choi[20]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적당한 시기는 임신 전후(44.2%), 고등학교(20.8%), 대학교(15.8%), 분만전후(10.5%)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응답 시기는 중학생은 임신전후[23], 고등학생은 고등학교[24], 여대생의 경우 고등학교[20] 등으로 대답하여 적당한 시기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 시기인 고등학교와 곧 모유수유를 실천해야 하는 임신 전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후 6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유수유 결정 시기는 임신전이 72.9%로 가장 높았고, 분만 후에 결정한 어머니는 10.0%에 불과하였다. 70%이상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임신 전에 모유수유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모유수유 교육은 임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며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모유수유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지식 정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은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경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제

공자에 대한 생각, 모유수유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경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 모유수유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을 본 경우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유수유 장면을 보기 어려운 현실과 가족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에게 교육받기를 원하는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인 및 보건교사를 통해 체계적인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반복연구와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 모유수유교육을 진행할 간호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모유수유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R. Kim, N. M. Hwang, J. E. Sim, Eojina Kim. Analysis on Breastfeeding and Nutritional Heal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KIHASA, 2008.
- [2] Hediger, Mary L. et al, "Association Between Infant Breastfeeding and Overweight in Young Children", JAMA, Vol. 285, No. 19, pp. 2453-2460, 2008.
- [3] Saarinen, Ulla M, and Merja Kajosaari, "Breastfeeding as prophylaxis against atopic disease: prospective follow-up study until 17 years old", The Lancet, 346. 1065-1069, 1995.
- [4] Armstrong Julie, John J Reily, "Breastfeeding and lowering the risk of childhood obesity", The lancet, Vol. 359, No. 6, pp. 2003-2004, 2002.

- [5] Grummer-Strawn, Laurence M., Zuguo Mei, "Does Breastfeeding Protect Against Pediatric Overweight?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ediatric Nutrition Surveillance System", *Pediatrics*, Vol. 113, pp. 81-86, 2004.
- [6] H. R. Kim, "Breastfeeding Trends, Affecting Factors and Policy Options for Breastfeeding Promotion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01, pp. 49-60. 2013.
- [7] E. J. Choi, "Breastfeeding-relate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49, pp. 72-81. 2017.
- [8] S. S. Lee, J. S. Park, S. Y. Lee, M. A. Oh, H. J. Choi 20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 [9] Chin LY, Amir LH "urvey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breast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f the royal women's hospital, Melbourn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14, No. 8, pp. 1-11, 2008.
- [10] S. O. Lee, S. S. Na. K. Y. Park "Exclusive breastfeeding rates of breast feeding-willing mothe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the 1st, 3rd, and 6th month of postpartum",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 16, No. 1, pp. 44-55, 2012.
- [11] 2015 Excellent Cas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6.
- [12] Manoj S, Rick P, "Impact of expectant fathers in breastfeeding dicisions", *J Am Dietetic Assoc*, Vol. 97, No. 11, pp. 1311-1313, 1997
- [13] Sarah E, "Why some women do not breast feed: bottle feeding and fathers'role", *Midwifery*, Vol. 16, No. 4, pp. 323-330, 2000.
- [14] Nigel S, Valerie H, Christina P, "Engaging and supporting fathers to promote breast feeding: A concept analysis", *Midwifery*, Vol. 30, No. 6, pp. 667-677, 2014.
- [15] M. J. Kang, C.W. Lee, K. B.Jin, E.J. Suh, J.S. Ahn, M.Y. Lee, "Snior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and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32, No. 1, pp. 95-100, 1999.
- [16] H. S. Kim, "Health Care Professionals Attitudes, Knowledge and Confidence on Breastfeeding : Metropolitan Areas of South Korea", *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 No. 2, pp. 243-253, 1995.
- [17] G. H. Jung,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Ewha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1997.
- [18] H. K. Lee, Y. Song, N. M. Kang,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 13, No. 3, pp. 367-373, 2008.
- [19] S. J. Kim, H. J. Kim, M. Y. Dong, S. m. Park, Y. S. Song, G. E. Lee, S. M. Lee, J. E. Jang, Y. J. Jung, Y. S. Choi,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al Volition Among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on Breast Feeding", *Journal of Ewha Nursing*, No. 47, pp. 63-80. 2013.
- [20] S. H. Kim, W. S. Choi,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1, pp. 93-106, 2001.
- [21] B. C. Song, J. H. Cho, I. Y. Lee, M. K. Kim,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Vol. 23, No. 2, 268-272. 2008.
- [22] J. Y. Le, W. J. Hyun, K. W. Lee, "A Study on Health-related Lifestyles and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Vol. 28, No. 2, pp. 126-135, 2013.
- [23] E. A. Cho, "Knowledge and Attitude for Breast Fee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7, No. 2, pp. 69-79, 2014.

- [24] K. S. Choi, H. J. Lee,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 11, No. 2, pp. 191-204, 2006.
- [25] J. S. Ra, S. M. Chae,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76-84, 2013.
- [26] J. I. Shim, S. J. Kang, "Impact of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Barriers on Breastfeeding Practice among Twin Mothe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89-98, 2017.
- [27] J. E. Kim, D. Y. Park, "A study on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breastfeeding among primigravida", Korean J Community Nutr, Vol. 6, No. 3, pp. 331-339, 2001.
- [28] S. H. Huh,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and husband's support on breast-feeding adaptation of breast-feeding mother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저자소개

임 재 란(Lim, Jae Ran)

[정회원]



- 2002년 2월: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모자보건, 건강증진

이 주 영(Lee, Joo Young)

[정회원]



- 2005년 2월: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여성건강